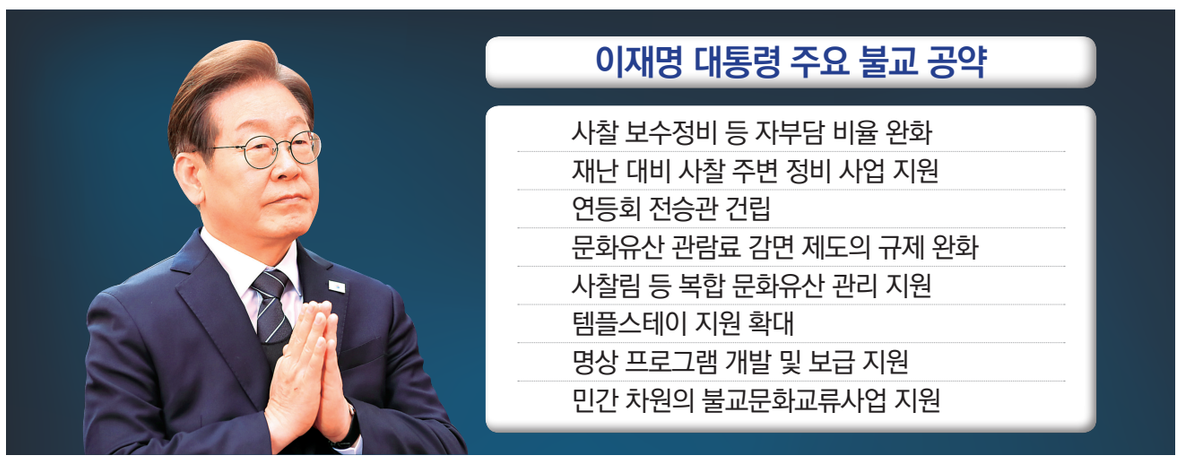
이재명 불교 공약 '전통문화 보존 강화' 초점

5월 5일 불교계 공약 발표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부터
연등회 전승관까지 약속해
조계종, 사찰 규제 완화 등
문화진흥 및 현안 해결 요구
태고종 "종단 형평성 반영"



이재명 대통령 주요 불교 공약

- 사찰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 재난 대비 사찰 주변 정비 사업 지원
- 연등회 전승관 건립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의 규제 완화
- 사찰림 등 복합 문화유산 관리 지원
-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발표한 불교계 정책 공약의 슬로건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여느 후보보다 빠르게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한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에서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전통사찰 규제 개선 △연등회 전승관 건립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국민 행복' 정책 제안

이번 대선에서는 차기 정부에 불교문화 진흥과 현안 해결을 제언하는 불교계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사회통합 실현 △정책 구현의 4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행복'을 견인할 첫 번째 과제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전통사찰(사찰림 포함)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통합 실현 부문에서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거사 치유 및 불교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 시설 건립 지원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 피해 보상 △제주 4·3사건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 호국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한 호국기념관 건립 및 해외 안장 순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추진도 정책으로 내놨다.

태고종 첫 대선 정책 제안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총무원장 직속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골자로 한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표했다.

태고종의 정책 자료집에는 △사찰 중심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납골당 규제 완화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성화 △공공기관 종교편향 방지 △영산재 국내외 초청공연 정례화 및 예산 확보 △종교문화행사 지원 강화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 등의 정책들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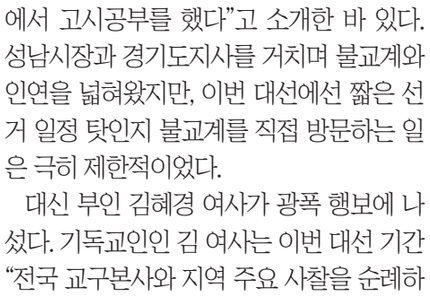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을 통해 특정 유형 종목에서 이뤄지는 인사·예산·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이 제안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사찰 기반 노인복지 모델이다. 태고종은 "사찰은 전통적으로 고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기도, 쉼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사찰 실버스테이는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결합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고종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해외공연과 전승관 건립 등 보존 관련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태고종은 "197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는 한국불교 의례의 문화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첫 사례지만,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정부 지원은 다른 불교 의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산재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 '태고무형유산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하며, 해외 초청 공연의 정례화를 통해 국내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불교 인연은?

기독교인 "어머니 따라 사찰 고시공부"
탄핵 정국 19대 대선 때 불교계 '첫인사'
이번 대선 김 여사 전국 돌며 불심 잡기



올해 5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교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건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며 사실상 불교계에 첫인사를 했다. 이어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후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주요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거나 SNS에 봉축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연을 이어갔다. 다만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직무 정지 및 해임 조치를 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언론보도와 달리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다시 조계종을 공식 방문한 건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정청래 의원이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식에 참석하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의료대란 등 정치현안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불교계를 잇달아 방문하며 소통에 나섰다.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사회 혼란 수습에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것이 후보자로서는 불교계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그는 이날 봉축메시지와 불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봉축메시지에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 다양한 사상, 철학까지 각기 다른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회통 정신으로 공존상생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겠다"고 밝혔다.

불교 정책으로는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불교 인연에 대해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구례 화엄사와 김천 청암사에서 고시공부를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불교계와 인연을 넓혀왔지만, 이번 대선에선 짧은 선거 일정 탓인지 불교계를 직접 방문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대신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폭 행보에 나섰다. 기독교인인 김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 "전국 교구본사와 지역 주요 사찰을 순례하며 불교계와 소통했다"고 말할 만큼 불심(佛心) 잡기에 힘썼다.

김 여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계 행사에 공식 참석하고 전국 사찰을 비공개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5월 12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와 함께 참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는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한 번 두 번 이어지며 그 의미를 몸소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2025. 6. 21 (토) 오후 6시

주관·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남사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접수·문의 010-3818-8387

■ 합동풍등접수 ▶행사당일 현장접수만 가능
동참금 1만원(불우이웃 돕기 전액기부)
※대형 높이3m 풍등에 소원지(60자이내)를 접수 후 풍등에 달고 띄웁니다.

1부 ▶시민과 함께하는 식전 공연
2부 ▶초청가수 공연 및 풍등 날리기



뉴진스님 개그맨 윤성호 / 신성 불타는트롯맨 준우승 / 한경일 대표곡:내 삶의 반 / 김소유 미스트롯 출연 / 신현희 대표곡:오빠야 / 정선호 기타리스트 / 염기랑 노래가좋아 출연 / 음유사인 JTBC풍류대장세미파이널진출 / 로투라 뮤지컬트리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BBS 불교방송 안성맞춤도시 City of Masters 안성

협찬 두원공과대학교 (주)성우테크 동부농산(평택)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안성해병대전우회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남사